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14호 2017년 2학기(2017. 9. 1 - 2018. 2. 28)  
2018년 1학기(2018. 3. 1 - 2018. 8. 31)



# Sol nursing times



## CONTENS

- 04 새로운 교수진 소개**  
신임교수 인터뷰 - 이정림 교수, 신임교수 인터뷰 - 임준서 교수
- 06 우수간호 역량 강화**  
(1) 취업역량  
2018년 취업현황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대학 교수 초청 간담회  
서울대학교병원 견학프로그램  
충남대학교병원특강  
졸업동문 멘토 네트워크 구축 특강  
(2) 학습역량  
학습유형검사  
프레젠테이션 기획전략 특강  
학습포트폴리오 작성법  
러닝콘서트  
Dr. Dipak 명예총장 특강  
(3) 임상실무역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학프로그램  
아주대학교병원 산학프로그램  
서울아산병원 인턴십  
삼성서울병원 인턴십  
3학년 실습
- 20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수간호**  
(1) NCEX-RN 합격 소식  
NCEX-RN 취득현황  
NCEX-RN 취득동문.  
(2) 해외 연수 프로그램  
동계 일본 해외 연수 프로그램  
SOL-challenge  
호주 : 다문화 환자 간호 및 정신 전문 간호사  
미국 : Cardiac nurse in America  
대만 : 호스피스 간호  
싱가포르 :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 싱가포르에 빠지다  
GPS : 필리핀 바탄반도주립대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
- 28 미래의 '후배양성'에 힘쓰는 우수간호**  
(1) 수시  
2017 수시최종  
(2) 고교연계 동아리  
고교연계동아리  
(3) 미리 가보는 대학 및 학과체험  
간호학과 전공체험 및 모의면접 시연  
찾아가는 대학
- 32 우수 간호 이모저모**  
(1) 즐거운 대학 탐구생활  
우송대학교 축제  
SOL-SUP  
새내기 콘서트  
우송체육제  
(2) 간호학과 일상 엿보기  
전학년 미팅  
간호학과 학술제  
버디버디 프로그램  
졸업식  
간호학과 MT  
다문화 가정 멘토링  
스승의 날  
결주동아리 경기대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3) 수상 내역  
자랑스러운 우송인상 수상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고 남 의      발행처. SOL-Time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 2017학년 2학기 신임교수 인터뷰 이정림 교수

벌써 6기째 졸업생들을 배출해 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교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이정림 교수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오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듣기 위해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정림 교수는 국내의 임상뿐만 아니라 국외 아랍에미리트의 임상까지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간호 리더를 육성하는 교수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우송대학교 교수이다.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졸업 후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약 20년 동안 간호사, 전문간호사와 파트장으로 직접적인 환자 간호부터 병동관리, 간호교육까지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명을 맡은 아랍에미리트의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에서 외래와 간호행정을 담당하는 Assistant Director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하는 흥미로운 경험도 하였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일하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을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학생들이 어느 보건의료분야에서 일하게 되면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저는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언젠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좀 더 선진화된 간호를 경험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나이지만 아랍에미리트로 갈 결심도 하게 된 것이지요. 국제화 특성 대학인 우송대학교의 비전과 간호학과의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 리더” 비전이 제가 학생들과 함께 꿈꾸고 싶은 방향이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 앞으로 가르치게 되실 과목이 무엇이며 지도교수님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 저의 임상 경험과 관련된 기본간호학 그리고 성인간호학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적응하느라 지도교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도교수로서 함께 ‘간호’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A. 바라는 점이라기보다 저에게,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강의할 때면 항상 인용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Rosabeth Moss Kanter의 자신감 중에서 “성공은 마술도 아니고 저절로 얻어지는 행운도 아니다. 성공은 모든 세세한 부분을 철저히 완성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력에서 나온다. 어쩌면 평범한 인간사라고 할 수도 있다”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도전을 즐기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이정림 교수

## 2017학년 2학기 신임교수 인터뷰 임준서 교수

2017년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선선한 단풍의 계절과 함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교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새로운 환경에서 첫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임준서 교수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오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듣기 위해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다.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 수술실과 소아정신과에서 근무하였으며, 대부분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하였습니다. 저는 간호학을 공부하기 이전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였고 스스로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찾던 와중 ‘인간’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간호학’에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임상 간호 전문 인력이 되어 꾸준한 학문을 연구하고, 임상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며 습득된 지식을 임상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간호학에 적용해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 수술실과 소아정신과에서 환자들이 건강 기능을 회복하여 무사히 부모님과 퇴원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고, 이를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A. 저는 간호학과 교수가 되고 싶었기에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 수술실과 소아정신과에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학생들과 학문에 관해서 연구하고 토의하는 학자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자 교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상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만나서 교육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 Q. 앞으로 가르치게 되실 과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2 학년과 3 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간호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동 간호학을 공부할 때 먼저 보아야 할 점은 아동의 연령별 발달단계와 아동과 가족을 포괄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전공서적 공부와 영상 시청, 사회적 쟁점 토의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체득하면서 환자가 퇴행하는지, 연령별 요구되는 체중과 키의 표준 치에 적합한지,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발달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A. 학생들이 간호학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고시 출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이 아닌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임상에 활동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이상적이고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 인력으로서 스스로 가치를 높여 주고 임상에서 오랫동안 자신만의 철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출처: 최은비 기자

## 취업 열매의 결실을 맺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19 졸업예정자 채용 현황



2019 졸업예정자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상반기 취업을 마무리하였다. 중복 채용을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27명,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8명,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명, 세브란스병원 13명, 삼성서울병원 10명, 서울아산병원 5명, 강북삼성병원 1명, 고려대학교의료원 10명, 아주대학교병원 6명,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명,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6명, 인하대학교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1명, 충남대학교 병원 20명 등으로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 정소영 기자

## 교수와 선후배 간의 돈독함을 느끼게 해주는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대학 교수 초청 간담회”



2017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대학 교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이정림 교수가 초청을 받아 간담회에 참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최보경, 신예진, 최진영, 이효진 동문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간담회에서 간호부문의 비전과 가치, 인재양성, 산업간호사와 교육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그 외에 병원생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수와 선후배 간의 돈독함을 느낄 수 있었다. 병원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

◆ 이호은 기자/사진출처: 이정림 교수



## 몸소 체험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견학 ‘서울대학교병원 전국 간호대학생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2017년 12월 27일과 28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견학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간호부문의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이수연, 이선형 학생이 교수회의에서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두 학생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병동을 견학하였으며 HIS(Hospital Information Service)와 간호부문의 소개를 들었다. 이외에도 새로 도입될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업무 능력을 평가할 것임을 밝혔고 채용 시 외국어 활용 능력을 강조할 것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입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함께 간호사의 보수 수준과 복리 후생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학생들의 병원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으며 변화된 채용방식에 대해 기대감과 긴장감을 자아냈다.

◆ 정소영 기자

# 자신을 스스로 알고, 칭찬하는 간호사 충남대학교병원 특강 황윤신 간호부장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병원 황윤신 간호부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의 내용은 개원 예정인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생생한 의료현장, 의료현장에서 지녀야 할 간호인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간호인재상 부분에서 전문적 지식, 능숙한 술기, 자기관리, 대인관계술, 의사소통술,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스스로 잘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기를 응원하며 특강이 마무리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고남의 학생은 "취업을 앞둔 시점에 이 특강을 듣고 나서 내가 간호사로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정표가 생긴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김혜민 기자/사진출처: 고남의 기자



# 취업에 대한 소망 한 아름 안고! 졸업동문 멘토 네트워크 구축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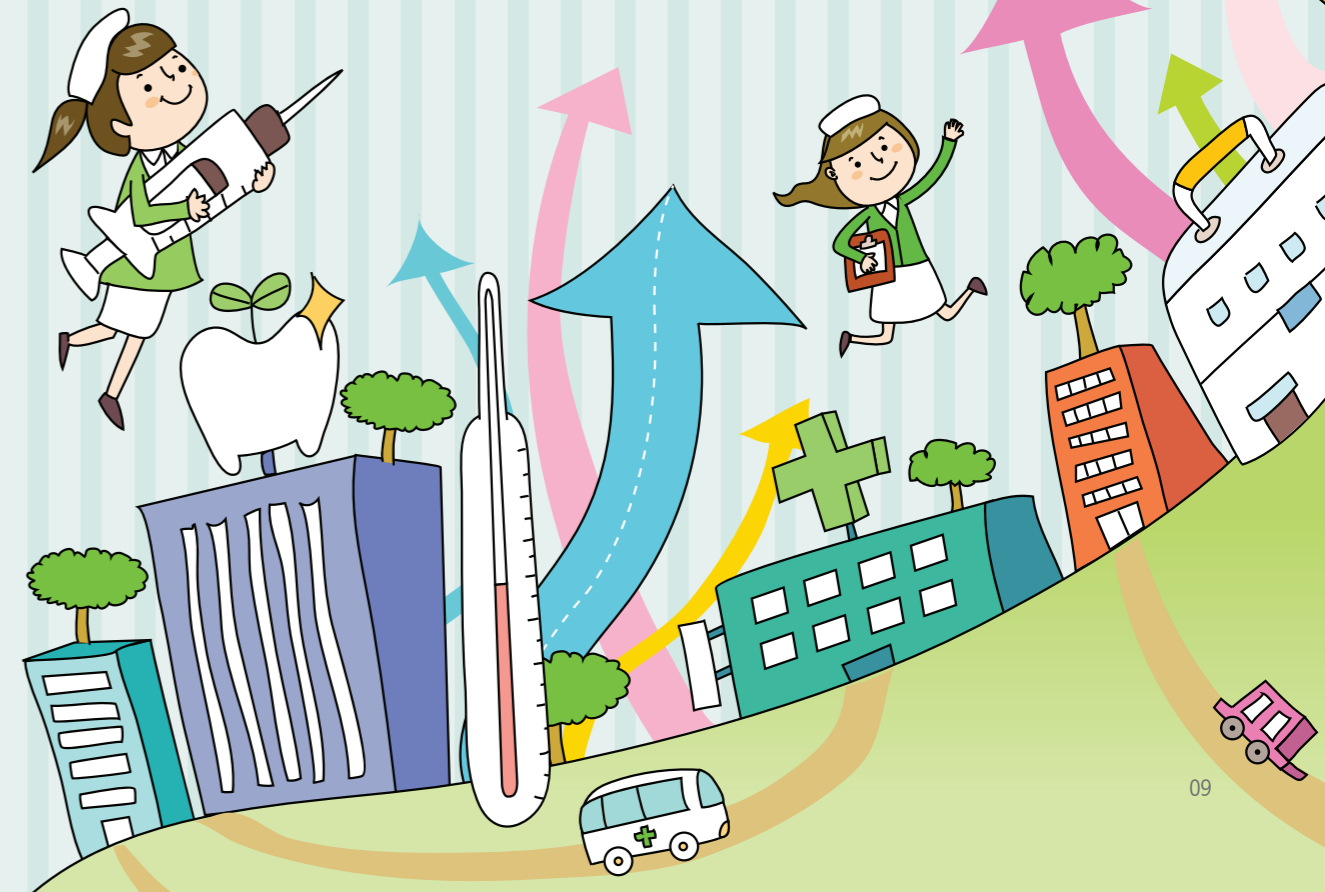
2018년 간호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 회의 졸업동문 멘토 네트워크 구축 특강이 진행되었다. 2018년 5월 2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술실 근무 중인 이미희, 원주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이수연,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병동의 권주혁 졸업 동문이 특강을 진행하였다. 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 필기시험 준비과정 및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 등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8년 새로운 전형이 반영됨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한 조언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배들과 함께하는 면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면접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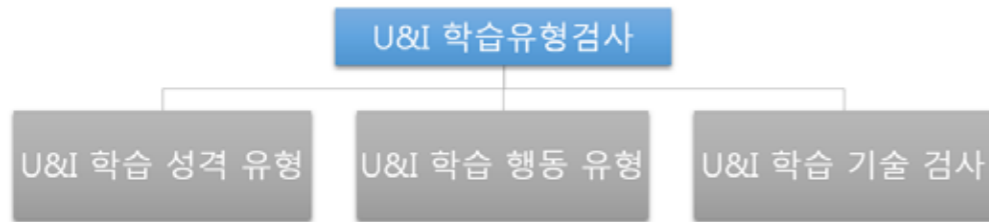
2018년 7월 5일 두 번째 졸업 동문과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김경선 동문은 자신의 학교생활과 취업 관련 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으며, 특히 현재 병원에서 신규간호사로서 힘들었던 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었고 앞으로 실제 임상에서 일하게 될 4학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2018년 8월 31일 3,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이진실, 국립암센터 수술실 김연희,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병동 김동희, 원주세브란스병원 응급중환자실 전 재직자 박신혜 졸업 동문의 특강이 이어졌다. 임상 경험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기숙사 생활, 희망부서 배치, 복지제도, 간호사별 환자 수, 급여 상승도 등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끝으로 특강이 마무리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최은비 학생은 "특강을 통해 취업 준비에 대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병원에서 적응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이호은 기자, 고남의 기자/사진출처: 김의현 기자, 고남의 기자



#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서! U&I 학습 유형 검사



2017년 9월 20일 보건의료과학관 101호에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U&I 검사가 이루어졌다. U&I 검사는 성격 및 학습 유형 검사로서 개인의 학습 성격 유형과 학습 행동 유형을 구분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학생들이 개인의 학습 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절한 학습법을 익혀 자신의 능력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U&I 검사를 마친 후, 학생들은 "학습 유형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또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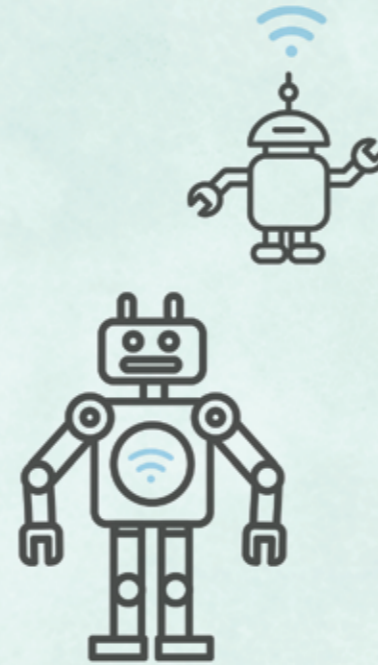
◆ 정설희 기자

# 스티브 잡스처럼 청중을 사로잡아라 프레젠테이션 기획전략 특강



2017년 11월 28일 사회복지융합관 시청각실에서 간호학과와 보건의료경영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희성 강사의 프레젠테이션 기획전략 특강이 있었다. 김희성 강사는 학생을 지목하여 질문을 던지며 프레젠테이션의 기법들을 소개하였고 이것으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었다. 특강은 프레젠테이션 기법, 모범사례, 청중의 관심을 끄는 법, 프레젠테이션할 때 점검해야 할 포인트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김희성 강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여러분의 앞으로 하게 될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 김혜민 기자 / 사진출처: 김혜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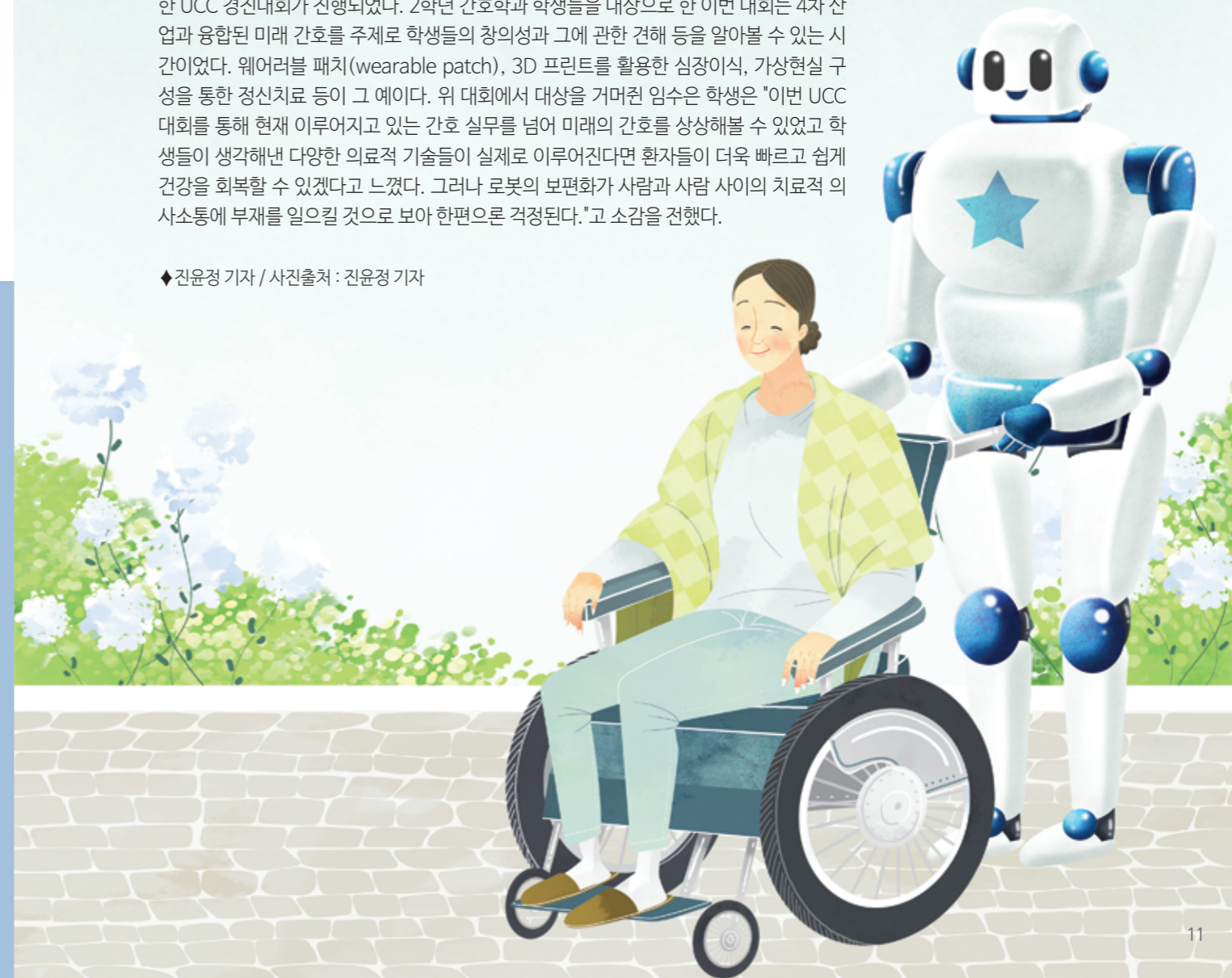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과 간호 미래 의료패러다임 속 간호사의 역할변화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 보건의료과학관 101호에서 '4차산업과 간호'를 주제로 한 UCC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2학년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4차 산업과 융합된 미래 간호를 주제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그에 관한 견해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웨어러블 패치(wearable patch), 3D 프린트를 활용한 심장이식, 가상현실 구성을 통한 정신치료 등이 그 예이다. 위 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쥔 임수는 학생은 "이번 UCC 대회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 실무를 넘어 미래의 간호를 상상해볼 수 있었고 학생들이 생각했던 다양한 의료적 기술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이 더욱 빠르고 쉽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로봇의 보편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치료적 의사소통에 부재를 일으킬 것으로 보아 한편으론 걱정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윤정 기자 / 사진출처: 진윤정 기자



##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기록하는 법 학습 포트폴리오 작성법



2017년 11월 21일 미디어융합관 시청각실에서 간호학과와 보건의료경영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포트폴리오 작성법 특강이 있었다. 흥효정 강사는 좀 더 의미 있고 바람직하게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는 법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도전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생활 및 대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정설희 기자 / 사진출처 : 정설희 기자

## 간호의 주춧돌을 쌓다 1, 2학년 러닝콘서트



2018년 5월 30일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닝 콘서트가 열렸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러닝콘서트는 우송타워에서 열렸으며 본 대회는 각 반에서 예선을 걸쳐 올라온 학생



들을 대상으로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목 내용에 대해 보드에 답을 적기, 영어 스크램블, 시리에게 물어보기 등 다양한 코너로 이루어졌다.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선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코너도 중간중간 마련되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경연에 참여한 1학년 박지영 학생은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는 형태가 아닌, 팀원끼리 함께 답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반면 2학년 학생들의 러닝콘서트는 보건의료과학관 411-3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의 실습 주제는 ‘유치도뇨’로 핵심간호 술기에서 어려운 술기 중에 하나로 꼽힌다. 대회가 열리기 전 학생들은 실습실 개방 시간을 활용해 술기를 연습하며 열의를 보여주었다. 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무균을 지키지 못하여 아쉬워하였고 앞으로는 주의를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어서 2018년 7월 25일 보건의료과학관 101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보건교육학 러닝 콘서트가 시행되었다. 대회는 2학년 학생들의 실습내용을 UCC로 제작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14개의 팀이 참여하였다. 보건 교육은 조마다 손 씻기 교육, 비만 예방, 응급처치 방법, 식중독 예방 등을 주제로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실습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각 기관에 연락하여 실습주제와 날짜를 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실습 전 미리 기관에 방문하여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후 적절한 주제 선정과 매체 활용, 참여도를 학생과 교수가 직접 평가하여 우승팀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나규리 기자, 주지호 기자, 강화경 기자/사진출처 : 백지원 학생, 정은영 교수

## 교육 혁신의 중심은 학생, 인재를 육성하는 교수 Dr. Dipak 명예총장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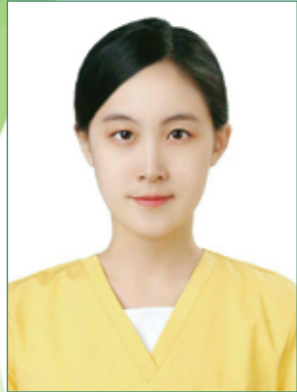


2017년 9월 7일 도서관 강당에서 우송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임명된 Dr. Dipak C. Jain의 특강이 있었다. Dr. Dipak C. Jain은 사신 경영대학의 원장, 켈로그 경영대학과 인시아드의 학장직을 역임하였으며 다수의 우수 기업들의 고문도 겸하고 있다. 특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으며 “창업에 주력하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한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창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특강에 참여한 이호은 학생은 “이번 특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과 함께 배우고 있는 학문의 경계를 확장하여 관심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 고남의 기자  
사진 출처 : 우송대학교 홈페이지(www.wsu.ac.kr)

## 산학협력, 실무역량 발휘의 디딤돌 산학협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실습 인터뷰



2017년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학생을 모집하였고 지원한 학생 중 최종적으로 총 14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위 학생들은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 달간 일산병원의 특수부서에 배치되어 '선택 간호 실습'과 '종합 간호 실습'을 하게 되었다. 산학생에 지원한 최은비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소감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자리를 마련하였다.

**Q. 안녕하세요, 산학협력 학생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 말씀해주세요.**

A.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내 최초의 보험자 병원으로서 의료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꾸준히 개발하고 적용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입니다. 또한, 국민의 보건 향상과 동시에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료비 산정으로 환자 중심 병원을 구현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접한 후 산학생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실습하였던 부서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A. 각 2주 동안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실습하였습니다. 첫째, 수술실에서 관찰 위주의 실습을 하였고 최첨단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춘 수술실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자궁절제술(hysterectomy), 인공 무릎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replacement, TKR), 개방정복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RIF) 과정을 보았습니다. 주로 해부학과 환자 채워, 마취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복실은 수술실과 달리 마취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수술 직후 간호를 임상에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응급실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를 이용해 응급환자를 초기에 평가, 분류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 순서를 정하는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점은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리실이 외부에 비치되어 있다는 점이었고 이를 통해 응급실의 감염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산학협력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우선 특수부서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특수부서에 배치되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의 경우 응급실 간호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목표와 직결된 부서에서 실습하였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을 도와주며 실무 역량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병동 현황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이 산학협력에 지원한다면 추천하는 한 마디 해주실까요?**

A. 후배들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학생에 지원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답했듯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전문직 간호사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고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의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담당 간호사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하에 다양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충분히 쌓아 실무에 투입되면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학생에 지원하고 싶다면 주저 없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출처 : 최은비 학생

## 산학협력 아주대학교 병원 실습 인터뷰 중증외상환자 간호 맛보기

2017년 아주대학교 병원은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생 실습 우수자를 선발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16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26일,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각 2주간 8명씩 나누어서 '종합간호실습'을 진행하였다. 실습 경험과 소감을 들어 보기 위해 김소원 학생과 인터뷰시간을 가졌다.



**Q. 안녕하세요, 아주대 병원 실습 우수자에 선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아주대학교병원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중증외상 환자에게 국제적 수준의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입원실 중 중환자실의 비율이 높게 구성되어 응급 및 중환자에 대한 우수한 치료시스템을 갖춘 병원입니다. 이러한 병원 이미지는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고 평소에도 특수부서 실습에 관심이 많았기에 실습 우수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실습한 병동을 소개해 주세요.**

A. 제가 실습하게 된 부서는 신경외과집중치료실(Neurological intensive care unit, NCU)입니다. 간호 대상자로는 뇌출혈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수행되는 체위변경, 욕창 예방 관리 등 기본적인 간호와 더불어 뇌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가 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Q. 이번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A. 일반 병동과 비교했을 때 집중치료실에서의 간호는 담당 환자에게 신경 써야 할 간호요소가 훨씬 많았습니다.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기기의 모니터링, 장기 부동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한 간호, 응급 수술 후 간호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학생으로서 도울 수 있는 범위에 내에 체위 변경, 환자 활력 징후 측정, 기본간호 보조 등의 수행을 직접 해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아주대 실습에 대해 추천한다면?**

A. 평소 응급실이나 특수부서 간호에 관심이 많은 후배에게 아주대학교 병원 실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당 실습이 모두 특수부서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인 아주대 병원에서의 실습은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남의 기자/사진출처 : 고남의 기자

## 서울아산병원 인턴십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꿈!



2017년 12월, 서울아산병원은 전국의 간호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인턴십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학생의 자발적인 지원 및 교수 추천 과정을 통해 우승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선형, 장지안, 한상미 학생이 인턴십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세 학생은 각각 응급 중환자실, 수술실, 일반외과 병동에 배치되어 1차로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2차로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각 5일 동안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였고, 응급 중환자실에 배치된 이선형 학생을 인터뷰하였다.

### Q. 안녕하세요. 우선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이번 인턴십을 다녀오기 이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2주간 실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산병원의 고도로 전문화된 간호 서비스, 협력적인 조직문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어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 인턴십과 실습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실습은 그저 관찰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인턴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동안은 모든 것이 평가에 반영되므로 프리셉터 선생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턴십 중간중간 수간호사 선생님과의 면담도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면접 질문은 다 꿰고 가야 합니다.

### Q. 인턴십을 다녀온 소감과 후배들에게 인턴십을 추천하는 한마디를 한다면?

A. 쉽사리 얻을 수 없는 기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와 동시에 부담감을 안고 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며 그곳에 온 다른 학생들도 열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마련해주었고,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모두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 한 발짝 다가서고 싶어 지원한 인턴십이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얻어온 일주일인 것 같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인턴십을 수료하게 되면 채용 시 우대(1차 실무진 면접), 최종 합격 시 우선 발령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매우 좋은 기회인 만큼 모두들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남의 기자 / 사진출처 : 이선형 학생

## 삼성서울병원 인턴십 희망하던 병원을 향한 발걸음

삼성서울병원은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하게 될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김수경 학생이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수경 학생은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인턴십과정을 수료하였다. 실습 경험과 소감을 들어 보기 위해 김수경 학생과 인터뷰시간을 가졌다.



### Q. 안녕하세요. 우선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2학년 때부터 가고 싶은 꿈의 병원이어서 인턴십이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학기 실습을 하고 있었던 중에 교수님께서 삼성서울병원 인턴십을 대비하여 모의 필기시험 GAST(Global Samsung Aptitude Test)를 본 후 반드시 점수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에 모의시험을 응시한 후 인턴십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의성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뽑힐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 취업과정 중에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합격에 한발 짝 다가선 것 같아 좋았습니다.

### Q. 실습한 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해주세요.

A. 인턴십을 지원할 때 1, 2지망을 같이 쓰라고 했어요. 저는 실습하면서 신경과를 가장 많이 해보기도 했고, 신경과를 많이 다녀봤지만,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신경외과(neurosurgery, NS)를 지원했습니다. 실습은 나무를 봤다면 인턴십은 숲을 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더 자세하게 교육 받기도 하고 검사나 사정하는 것들을 몸소 익히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보통 특수부서를 많이 지원해 2지망이나 지망하지 않은 부서를 배정받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운 좋게도 1지망인 신경외과, 그 중에서도 척추센터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 Q. 인턴십과 실습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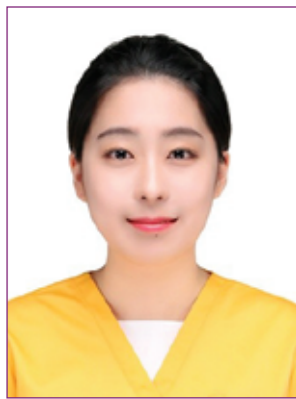
A. 실습은 기본적으로 교육, 간호술기술 등이 중점이 되었다면 인턴십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나무보다 숲을 볼 수 있는 입장이라 병동에서 일어나는 업무들, 신규간호사의 교육 등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투약 준비를 하는 과정, 시술하기 전 준비사항 등 교육도 많이 해 주셔서 미래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어떨지 상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교육간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중에 입사하면 이런 점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병원이, 그리고 병동이 운영되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 인턴십이라고 생각합니다.

### Q. 인턴십을 다녀온 소감과 후배들에게 인턴십을 추천하는 한마디를 한다면?

A.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대해 더 알기 위해 하는 것이 인턴십이고, 그만큼 인턴십 기간 동안 알려주십니다.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찾아봐서 얻게 되는 정보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주는 정보가 더 정확하고 많아서, 이 점에서 꼭 가고 싶었던 학생이 인턴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학년이 되면 가고 싶은 병원도 생기고 취업도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보다 지금부터 병원을 알아보고 실습에 나가서 내 가치관과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 더 알고 싶다면 인턴십에 지원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남의 기자 / 사진출처 : 김수경 학생

## 간호의 세계화를 위해, 하계 실습을 통한 실무 역량 증진 우송 간호의 첫 번째 하계 실습 인터뷰



올해 여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하계 임상실습을 하게 되었다. 임상 실습으로 배운 것과 인상적인 부분을 후배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임상 실습을 나간 3학년 김영빈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실습 과목과 병원 및 병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환경과 특수 장비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김영빈입니다. 저는 아동 간호학실습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병원 135병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인간을 존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여 인류의 행복과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는 미션에 걸맞게 전문 간호를 수행하고 실력 있는 간호부, 함께 일하고 싶고 신뢰받는 간호부,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간호부 등을 양성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실습한 135병동은 심장, 뇌, 폐 기관을 중심으로 다루는 심장과, 소아 청소년 중환자과 외 소아 심장외과 어린이 병동이었습니다. 팀 간호로 시행하고 있으며 병동을 A, B, C, D 구역으로 나누어서 전담 환자를 간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실습이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대하는 만큼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 주셔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기간 중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상황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심실 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V Fib) 이나 심실성 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V tach)을 실제로 들고 ECG(Electrocardiography, 심전도 검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위험하고 긴장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Q. 실습을 하면서 배운 점과 이론 공부와의 차이점에 관해서 사례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A. Kawasaki disease(가와사키병)를 앓고 있는 환아를 실제로 보면서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계속되는 발열, 딸기 혀, 안구 결막 충혈 등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 공부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증상만을 확인하고 암기하는 반면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간호사 선생님과 아이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고 간호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활력 징후를 측정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실습으로 처음으로 신생아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면서 빠른 심장 박동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내내 너무 신기했습니다. 실습 동안 수업 시간에 배운 간호 지식을 더 공부하면서 근거 중심 간호를 수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왜 이런 처방이 내려졌고 왜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질문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습하게 될 후배들에게 전해 줄 충고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실습을 처음 나갈 때는 누구나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고 더 밝은 웃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나 태도는 당연하고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혼자 공부해 오는 학생들은 임상 실습으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실무 역량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간호란 무엇인지, 간호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목표와 개념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면 각자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김익현 기자 / 사진출처 : 김영빈 학생

## 우송 간호의 두 번째 하계 실습 인터뷰

**Q.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의 실습과목과 부서에 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엄정은입니다. 저는 이번 하계실습을 통해 강남세브란스 응급실에서 2주간 성인과목 실습을 하였습니다. '의료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분들의 국적이 다양해 간호사의 다문화 역량 및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트리아제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진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중증도 분류실과 환자분의 중증도에 따라 위급한 순으로 간호사실 바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배드에 배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Q.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응급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A.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공통 상징 약자로 전 의료진은 환자의 주 증상을 파악하고 팀을 이루어 즉각적인 처치에 임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실무 방향을 영단어 약자로 지정해 놓았으며 BEST는 뇌졸중 환자, FIRST는 MI(Myocardial infarction, 심근 경색) 환자, TEAM은 외상 환자, SAFE는 학대 및 방임 환자, (pre)RAPID는 대동맥 박리 환자, 마지막으로 COOL은 저체온 요법 환자를 의미했습니다.

**Q. 실습을 하며 느꼈던 점이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실습을 통해 병원의 여러 부서를 직접 체험해보며 막연하게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역량과 특성에 적합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책에 적혀있던 간호 실무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병원에서 맡는 세세한 업무들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수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협력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동료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추고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지 관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 진윤정 기자 / 사진출처 : 엄정은 학생



## The first step in becoming a nurse in America



This year, the number of graduates and students attending Woosong University that have achieved NCLEX-RN, have reached up to 24 people. NCLEX-RN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is a test to determine if it's safe for the students to begin practice as an entry-level nurse. Students who achieve this license are qualified to become an official nurse in the United States. Every state in the United States requires this license. So i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students to pass the exam to become a nurse in America. Nursing students at Woosong University prepare their NCLEX-RN in advance through an International Global Nursing course, so it is easier for them to obtain this license. We encourage more students to take the test and we support their challenges.

◆ Reporter-Yunjin Lee

## 끊이지 않는 열정, NCLEX 취득기 1기 졸업생 김재영 동문



2018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NCLEX-RN(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Registered Nurse) 면허증을 취득한 졸업생과 재학생이 24명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 NCLEX-RN을 취득한 김재영 졸업 동문의 면허증을 취득한 계기와 준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인터뷰를 마련하게 되었다.

### Q. NCLEX 취득 계기 및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우송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육성 취지에 맞게 1기였던 저희는 입학과 동시에 영어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 2학년 때 토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며 영어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이어 원서로 전공과목을 배우며 영어와 거리가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의 강의, 호주 요양사 자격증 취득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언젠가는 정말 미국에서 일할 수도 있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는 따로 NCLEX-RN 수업과 문제풀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 그 유형에 대해 미리 맞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간호사 근무의 시작과 동시에 부서 적응을 위해 NCLEX-RN 준비에 조금 소홀해졌으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제 일상에 큰 도전을 이루고 싶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카톡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 의기투합하여 NCLEX-RN 총정리 과정을 듣게 되었고 반복되던 일상 속 희미하게 묻혀있던 NCLEX를 향한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Q. 자격증 준비과정 및 후배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이직 준비 과정 동안 쉬는 기간이 생겨 인터넷강의에서 'Saunders'라는 책으로 90일간 이루어지는 총정리 과정을 들었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을 추려서 하셨다고 했지만, 과목 자체도 성인, 여성, 아동, 정신 4과목을 다 챙겨야 하니 양이 생각보다 방대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듣는 것이 과연 시험에 도움이 될까 두려웠지만, 그동안 잊었던 간호지식을 다시 채워보자는 의미에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감날짜까지 어렵게 강의를 모두 들었고 NCLEX-RN시험은 사이판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날짜가 가을로 정해지니 마음이 두근거렸고 새 직장에서 NCLEX-RN를 취득하신 선생님은 'OO' 문제풀이 사이트를 추천 해주셨습니다. 그 방대했던 총정리 내용을 혼자 다시 되짚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순간에 알게 된 단비 같은 정보였습니다. 전체 문제가 1,900개 정도 되었고요. 해당 앱이 있어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도 적어도 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었습니다. 기반을 다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에 비중이 높은 성인부터 시작하여 야에 과목별로 문제를 풀어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제마다 정답에 대한 해설과 다른 번호는 왜 오답인지 설명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기에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 공부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900문제와의 사투를 한 번 마쳤고, 자꾸 실수하는 부분들을 간추려 오답 노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시험 날짜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를 2회 정도 반복하여 꼼꼼히 복습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마지막엔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NCLEX-RN 문제는 국가고시와는 조금 다르고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가 실무적인 상황들을 주면 자체적으로 정확히 사정하여 어떠한 질환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는지 밝혀 내고 또 그에 맞는 중재 중 우선순위를 고르는 문제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는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도 잘 모르고 보기를 봐도 정답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병원에서 매일 일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확실히 NCLEX-RN 시험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도 끊이지 않는 도전을 통해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윤정 기자/사진 출처 : 김재영 졸업동문

## 2017학년도 동계 일본 해외 연수 일본 자연재해 체험 및 재난 대피 훈련



지난 2018년 2월 18일에서 23일까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김유정, 정소영, 전민경, 강소영 학생은 6일간의 일본 해외 연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은 우송대학교에서 보건복지대학의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간사이 대학교에서 사회안전부 학부 특강을 듣고 아베노 방재 센터와 쓰나미, 타카시오 스테이션을 방문하는 등 자연재해 대피, 안전 분야 관련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유니스코 세계 유산인 히메지성 견학과 같은 역사 문화 현장도 체험하였다. 학생들은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재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지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기회가 되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소영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동계 일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해외 연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강소영입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본격적인 일정은 19일 간사이 대학교 탐방을 시작으로 지진, 화재 중심인 아베노 방재센터에서 지진 체험을 하였고 20일에는 Kyocera 파인 세라믹 기업과 MK 택시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체험하였으며 21일에 OLFA를 방문하고 쓰나미, 해일 중심인 쓰나미/타카시오 스테이션을 방문하였습니다. 22일 히메지성 견학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23일에 귀국하였습니다.

**Q. 일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몸소 체험하고 배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일본 현지 문화 체험을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은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 보는 마음가짐에 대단함을 느꼈고 저 또한 그러한 실천력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일

본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 자연스러웠으며 친절함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 동안 편의점에 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전해 줄 때 손님이 편하게 고리를 잡을 수 있도록 두 손잡이를 잡아 주는 작은 서비스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눈에 확 띄는 행동도 좋지만, 오히려 생활 속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작은 배려들이 모여 상대에게 큰 행복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가져온 변화가 있으신가요? 또 이 프로그램을 후배에게 추천하신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이번 일본 해외 연수를 통해 예절과 배려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는 전공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도전 정신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후배들이 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많이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현 기자 / 사진출처 : 강소영 학생



## 꿈에 날개를 달다 'SOL challenge' 프로그램-호주



간호학과 1학년 정설희, 인소영, 서정연, 김승은 학생으로 구성된 'KAN' 팀은 'Sol-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하여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의 탐방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Sol-challenge'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획부터 수행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공별 글로벌 역량 및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KAN' 팀의 학생들은 다문화 환자와 소통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꿈꾸고 있다. 또한, 팀원 전체가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향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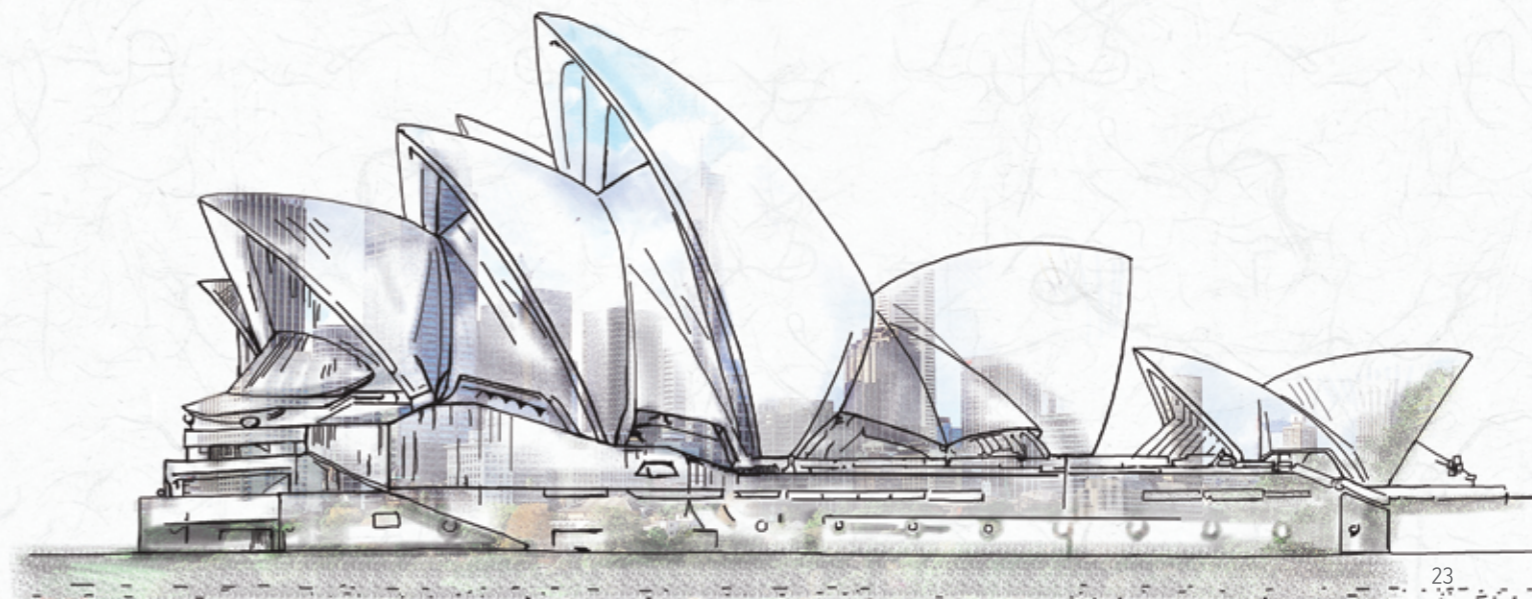
관심이 있으며 정신 전문 간호사를 미래 진로로 꼽는 학생도 있다. 따라서 본 팀은 수준 높은 다문화 및 정신 간호를 제공하는 호주를 탐방 국가로 하여 'Sol-challenge'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KAN' 팀의 일정은 총 12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학생들은 사회단체인 'ACON(AIDS Council of NSW)'에서 'MHFA(Mental health first aid)'를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표준 정신 건강 응급 조치사(Standard mental health first aider)'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호주 한인 간호 협회(Korean Nurses Association of Australia, KNAA)의 협회장과 고문을 만나 한국과 호주의 다문화 환자에 대한 케어 및 간호사의 업무의 차이에 대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에 있는 'Cumberland' 병원을 방문하여 운영 간호사 관리자(operating nurse manager)로서 근무 중인 호주 간호사와 다문화 환자의 효율적인 케어를 위해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드니의 국립대학교인 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를 방문하여 재학생으로부터 호주 간호학과 교육 과정 및 시설 등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하였다.

KAN 팀의 학생들은 호주 탐방 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으로 MHFA 프로그램 수료를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14시간의 교육 수료는 힘들었으나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방식을 통해 정신 질환에 대해 더 입체적인 정신 질환 대처 방안 및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호주를 탐방한 KAN 팀의 학생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다문화 사회에 맞는 태도 및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 정설희 기자 / 사진출처 : 정설희 기자



## Sol-Challenge: US team 'Green Narae'

On Feb. 5, 2018, Kim Gyeong Min, Kim Ho Geon, and Kim Ye Jun from Woosong University went to the US as a part of the Sol-Challenge Program. In the Nursing Department they were the second teams to visit the US through Sol-Challenge program. We interviewed the Green Narae team to hear their plans and impressions of the Sol-Challenge in the United States.



### Q. Hello. Please introduce yourself.

A. Hello. Nice to meet you. We are Kim Gyeong Min, Kim Ho Geon, and Kim Ye Jun from Wooso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 Q. What was your motivation in choosing US for your Sol Challenge?

A. In fact, we didn't even imagine being chosen for the Sol Challenge program. We were just nursing students who had a lot of thoughts about American nurses, thinking 'I want to learn more about American nurses!'. In addition, we had a deep interest in cardiac nursing practice in the US- this was what motivated us to work for it.

### Q. What were the goals and themes of Green Narae Team?

A. The goal of our Sol Challenge team was to learn about cardiac nur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compare Korean nursing to American nursing. Also, the subject was 'Cardiac nurses in the United States'.

### Q. What were the activities of the Green Narae team?

A. We visited 'Weill Cornell Presbyterian Hospital' in the United States, interviewed Korean nurse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ravelled within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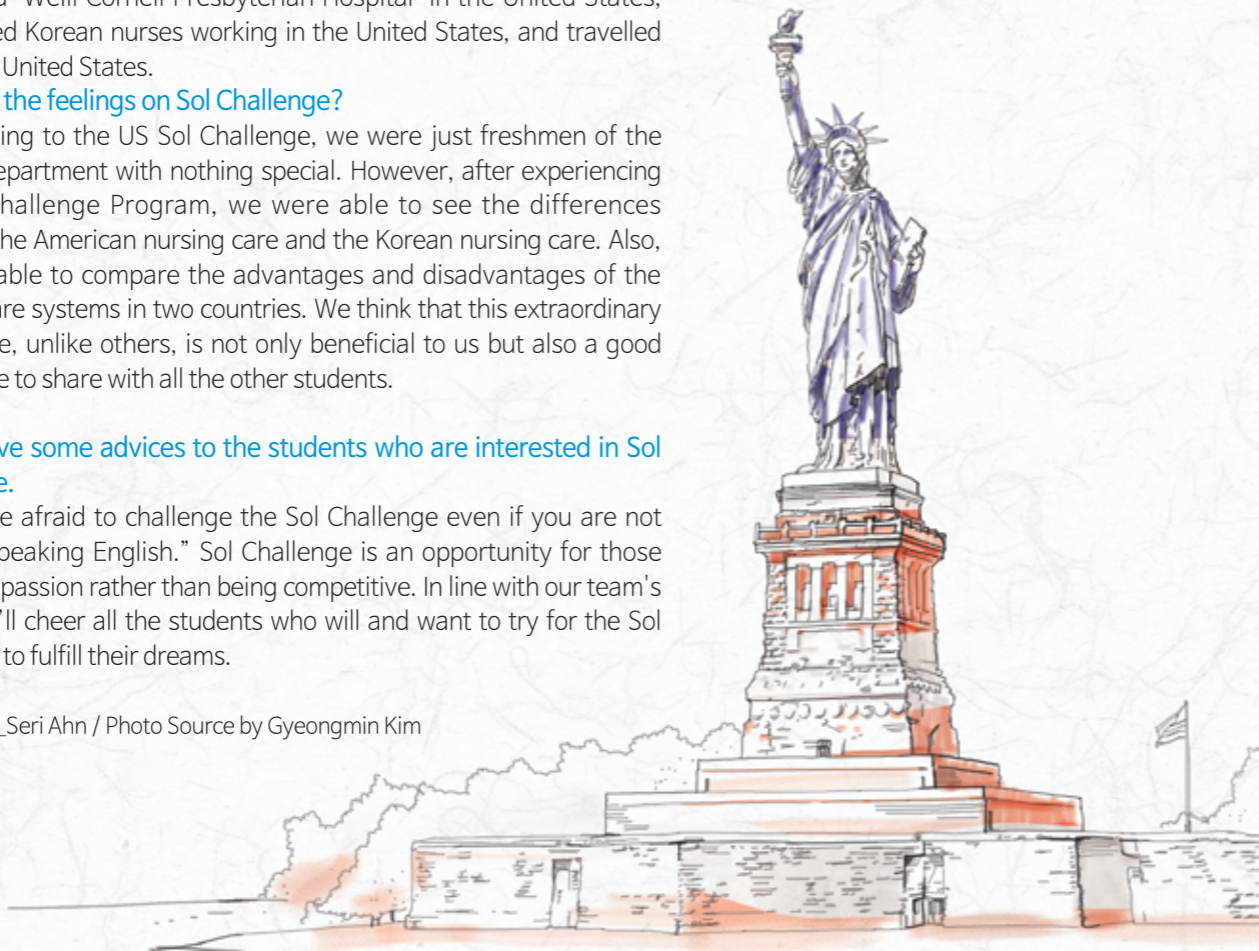
### Q. What are the feelings on Sol Challenge?

A. Before going to the US Sol Challenge, we were just freshmen of the nursing department with nothing special. However, after experiencing the Sol Challenge Program, we were able to se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merican nursing care and the Korean nursing care. Also, we were able to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nursing care systems in two countries. We think that this extraordinary experience, unlike others, is not only beneficial to us but also a good experience to share with all the other students.

### Q. Please give some advices to th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Sol Challenge.

A. "Do not be afraid to challenge the Sol Challenge even if you are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Sol Challenge is an opportunity for those who have passion rather than being competitive. In line with our team's name, we'll cheer all the students who will and want to try for the Sol Challenge to fulfill their dreams.

◆ Interviewer\_Seri Ahn / Photo Source by Gyeongmin Kim



## Well-dying, 대만의 호스피스 간호 'SOL challenge' 프로그램-대만



간호학과 4학년 김소원, 김채윤, 박민준, 이선형, 전위림 학생으로 구성된 POINT (Potential International Nursing Team) 팀은 대만에서 2018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의 Sol-Challenge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과 대만의 호스피스 간호를 비교 및 분석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고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의 만족도와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대만으로 Sol-Challenge를 가게 되었다. 츠지 의과 대학병원, 맥케이 기념 병원 등의 호스피스 관련 일정부터 현지 문화 탐방까지 탄탄한 일정과 계획을 세워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대만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죽기 좋은 나라'로 알려진 이유는 호스피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츠지 의과 대학병원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진행되는 원격 호스피스인 원격 호스피스 모델과 임종환 말기 환자가 해부용 시신을 기증하여 의대생의 정신적 멘토가 되었다는 '무언의 멘토'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맥케이 기념 병원에서는 임종환 말기 환자에게 특화된 완화 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병원 탐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국립 타이완 대학교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인식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직접 시행하여 탐구하기도 하였다. 김소원 학생은 "호스피스 제도가 체계적이고 관련 인프라와 간호 서비스가 다양한 만큼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이용률 또한 매우 높았다. 이번 도전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의 임종 간호 발전에 이바지하는 간호 인력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김의현 기자 / 사진출처 : 김소원 학생



## 끝없는 열정! 용기 있는 도전! 'SOL challenge' 프로그램 - 싱가포르



2018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상미, 권오민, 홍현정, 박지은, 황은지, 박주보, 조수경, 김효운 학생이 'Sol-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준비과정 동안 채팅방을 만들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메일을 통해 의료진과 접촉하여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또한, 인터뷰를 위해 사전 질문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직접 기획한 일정에 따라 탐방을 나선 학생들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병원 방문, Ark Chiropractic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 care) 현장 경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현대 건설에서 준공한 그린 마크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Khoo Teck Puat Hospital'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도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탐방,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Singapore) 견학과 싱가포르 국립 간호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견학 및 간호학과 학과장과의 만남을 통해 국립대학교 간호학과 교육시스템을 체험하였고 싱가포르 헬스케어(health care)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글로벌 간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4학년 한상미 학생은 "'Sol-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허브'라 불리는 싱가포르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며 싱가포르 현지 간호사를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우수 간호의 비전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탐방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한수민 기자 / 사진출처 : 한상미 학생



## 2018 WSU Global Presentation Showcase winner's Overseas Training Program English Language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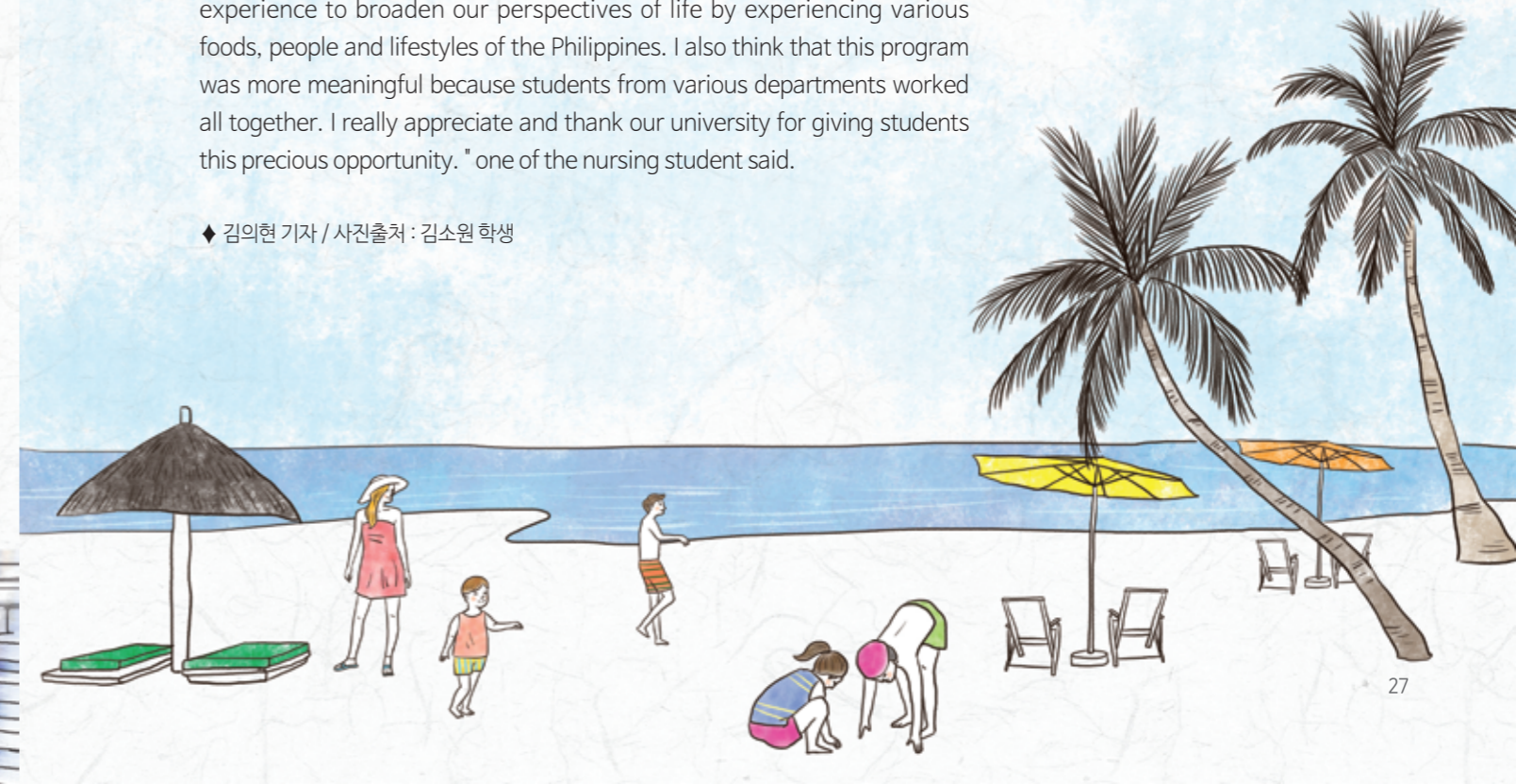


From August 1-15, 2018, a total of 22 students of 2018 WSU Global Presentation Showcase winners, including 6 from the nursing department, went overseas for the English language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 The short term program took place at TIMES-SLC (Subic Language Learning Center) by the '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in Subic, Philippines. The programs were designed for students whose purpose was to experience the real-life application of the English language.

WSU students have not only studied English but also have had various cultural exchange experiences. English lessons were taught in 3 ways: 1: 1 private lessons, team group lessons, and activity lessons. Activity classes were conducted on daily basis, such as group dynamic activity day and English quiz bee day, etc. On weekends, students went out of Times-SLC and had experienced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including Clark city tours and Subic yachting. Students interacted with a lot of people from diverse cultures, as Philippines is known as a multi-cultural country, with all people living in harmony.

"The amazing activities and the English classes offered in this short-term program enhanced 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improved my confidence in using the English language and gave us the experience to broaden our perspectives of life by experiencing various foods, people and lifestyles of the Philippines. I also think that this program was more meaningful because students from various departments worked all together. I really appreciate and thank our university for giving students this precious opportunity." one of the nursing student said.

◆ 김의현 기자 / 사진출처 : 김소원 학생



## 새로운 민들레 씨앗을 맞이하는 시간

우송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을 살펴보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 동안 면접고사가 진행되었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10월 23일에 시행되었다. 그중 간호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6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0명 정원 내 66명의 학생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2018학년도 간호학과 경쟁률은 12.5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17년도의 경쟁률인 17.17대1의 경쟁률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런데도 학교 전체 지원자 비율에서 35.5대1의 결과를 기록하며 경쟁률 상위 학과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그 후 보건의료과학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0월 23일에 각각 2018학년도 수시 면접고사가 진행되었다. 지원자들은 면접 준비 및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질문을 하는 열정을 보여 주었으며 면접 후에는 'Sol-hospital'의 PICU(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소아 중환자실), ICU(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OR(Operating Room, 수술실)를 견학하면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자들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18학번으로 오고 싶다는 의지를 비쳤으며 지난 23일을 끝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수시 면접고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김혜민, 정설희 기자 / 자료 출처 : 우송대학교 입학 종합서비스 홈페이지 참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18학년도 수시

단과 대학	모집 단위	정원내										소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잠재능력 우수자전형		고른 기회전형		글로벌인재전형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간호학과	52	573	4	58	4	142	1	14	5	40	66	827	12.53	

WSU 동아리 체험교실



## 꿈을 향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협동!

'WSU 동아리 체험교실'



2018년 8월 25일 우송대학교 우송타워 4층에서 WSU 동아리 체험교실 최종결과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는 총 25개의 동아리가 참여하였으며 간호학과에서는 2개의 동아리가 참여했다. WSU 동아리 체험교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래 희망 학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미래 진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대학생들은 학과 및 동아리 홍보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본 행사는 각 학과의 홍보 동영상 및 입학처장님의 말씀으로 막을 열었으며 참여율, 활동 과정, 교육적 가치, 발전 가능성, 발표력으로 총 5개의 심사 항목 내에서 각 동아리의 프로그램 활동을 평가해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5팀을 시상했으며 간호학과 동아리 중 1개인 'SOL-TIMES'가 동상을 받았다. WSU 동아리 체험교실 중 SOL-TIMES 동아리와 함께 활동한 신탄진고등학교의 한수은 학생은 "고등학교에서는 할 수 없었던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정설희 기자 / 사진출처 : 백지원

## 우송간호의 씨앗, 예비 간호학생에게 심다.

간호학과 전공체험 및 모의면접 시연



2017년 9월 9일, 11월 9일에 걸쳐 우송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별 전공 체험 프로그램 '미리 가보는 대학 3차'와 '학과체험'이 진행되었다. '미리 가보는 대학'은 보건복지대학 학과장과의 짧은 수시 대비 면접 이야기로 막을 열었으며 '학과체험'은 간호학과 정은영 학과장의 간호학과 소개로 막을 열었다. '미리 가보는 대학'과 '학과 체험'은 보건의료과학관 4층 실습실과 5층에 있는 모의 실습 병원인 'SOL Hospital'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서로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간호학과 교수들의 설명에 따라 PICU(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소아 중환자실), ICU(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OR(Operating Room, 수술실)에서 간호 술기 및 시뮬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쳤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 김한서 학생

## Going to University in advance

On May 12, a field trip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from Bomun, Gubong, Woosong and Jeonnam Yeongam High School was conducted by Woosong University to promote the Department of Nursing. Students got the chance to experience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suring vital signs and touring the Sol-hospital. Students learned basic conversations for Chinese, Russian and Arabic. Also during their tour of Sol-Hospital students listened to the lectures about how medical devices are used by each sections of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ICU(Intensive care unit) and OR(Operating room). In addition to listening to lectures they also got the opportunity to touch and demonstrate each of the devices. Second grader Jeong so young said "B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s a supporter and presenter, I was able to see the progress I have made in the past two years as a student. Also while I was preparing for the second language presentation I was able to raise my responsibilities."

◆ Reporter\_Yunjin Lee

## 우송간호를 보다 깊이 알아가는 시간

우송대학교 '찾아가는 교수특강'



'찾아가는 교수특강'이란 교수가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시행하는 특강이다. 이 특강은 학교, 학과 생활을 넘어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간호학과 잡지 및 졸업생들의 활약상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보충되었다.

2018년 2월 7일 단양고등학교에서 간호학과 진학이 목표인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수특강'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을 담당한 이정림 교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와 학과 공부에 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을 보며 참 대견했고, 미래의 간호 인력에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 보람차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2018년 6월 15일 대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3학년 학생들과 서울 명지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수특강' 특강이 진행되었다. 간호사의 중요성, 간호학과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4차 산업 혁명 사회 속에서도 간호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와 간호사라는 직업의 영예로움에 대하여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우송 간호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송 간호에 대한 호기심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연도에는 한국인 교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수(프라티바, 제시카, 에밀리 교수)도 참여하였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자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통역사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에 특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특강이 마감된 후에도 요청이 많아 추가적인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찾아가는 교수 특강은 2학기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정은영 교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우송 간호가 알찬 학과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 한수민 기자, 진윤정 기자 / 사진출처 : 정설희 기자

# 즐거운 대학생활  
탐구생활

## \_01 HAPPY HALLOWEEN FESTIVAL

우송대학교 축제

2017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송대학교 축제가 진행되었다. 축제는 과별 부스 운영과 버스킹 공연, 동아리 특별공연, 우송 청춘 토크쇼, 가수들의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간호학과 부스에서는 이번 축제 주제인 할러윈에 맞도록 손가락 모양을 한 소시지를 판매하였다. 또한, 매운 소시지 빨리 먹기, 눈을 가린 채 한 바퀴를 돈 후 손가락으로 과녁을 찍는 게임 등의 많은 이벤



트를 준비하였다. 다양한 부스 덕분에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축제가 되었다. 저녁에는 우송 할러윈 가요제와 특별공연에 이어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올해 우송대학교 축제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다.

◆ 김혜민 기자 / 사진출처: 최은비 기자

## \_02 우송 간호에 첫걸음을 내딛다

Sol-Sup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에 걸쳐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우송대학교 서캠퍼스에서 Sol-Sup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Sol-Sup은 개강 전에 진행된 1차와 개강 후 진행된 2차로 나누어졌다. 또한, 특강, 리더십, 창의 학습, 글로벌 수업 등 전반적으로 신입생의 학교 생활을 돕는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수업 중 하나로 학생들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있



었는데 이러한 수업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강의, 캠퍼스와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번 Sol-Sup에 참여한 1학년 유선미 학생은 "Sol-Sup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대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김혜민 기자 / 사진출처: 강규민 학생

## \_03 어서 와, 새내기 콘테스트는 처음이지?

새내기를 위한 축제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우송예술회관에서 우송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콘테스트가 열렸다. 3월 15일에 있었던 예선에서는 간호학과 신유진 외 7명의 학생과 김수현 학생이 참여하여 끼를 펼쳤고 이후 본선에서는 김수현 학생이 부른 가수 벤의 '꿈처럼'이 울려 퍼졌다. 새내기 콘테스트는 다양한 학과에서 모인 학생이 참여했으며 춤, 노래, 응원전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1학년 박지영 학생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의 퀄리티가 높아서 즐거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잠시나마 학업에서 벗어난 새내기들이 열정을 보여준 행사였다.

◆ 나규리 기자 / 사진출처: 흥은주 학생

## \_04 즐거운 소통의 장, 새로운 시축

2018 우송 체육제



우송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0, 11일 이틀간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대운동장에서 2018 우송 체육제가 열렸다. 본 행사는 학과별 대표 선수단의 입장으로 시작되었으며 총장님의 시축으로 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후 축하공연, 학부(과)별 응원전과 학과별 대표선수들이 참여한 축구, 여자 피구, 단체 줄넘기, 씨름, 줄다리기, 1000M 계주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18 우송 체육제는 지금까지의 체육제와는 다르게 간호학과 학생들이 1000M 계주뿐만 아니라 피구, 단체 줄넘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였으며 피구 종목에서 간호학과 최초로 4강에 진출했다는 점이 특별했다. 이에 단체 줄넘기 종목에 참여한 간호학과 2학년 이연주 학생은 "체육 대회를 통해 선후배가 돈독해질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함께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우면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본 체육대회는 많은 학생이 체육대회를 함께 즐기고 소통할 기회가 되었으며 종목별 시상, 응원상, 입장상, 종합상 등을 시상한 후 이어지는 총장님의 훈화 말씀 및 폐회 선언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 정설희 기자 / 사진출처: 안세리 기자





\_01

## 2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2017-2 전 학년 모임

지난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전 학년 학생들과 교수진이 2017년 2학기 첫 모임을 했다. 이번 전 학년 모임 진행은 정은영 학과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간호학과 교수진과 조교를 소개하고, 연간 교내 행사와 학생회 소개, 간호학과 프로그램 및 학과 규칙 안내와 재학생 활동 보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소개된 교수진은 이정림 교수와 임준서 교수이며 새롭게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기숙사 외박 규칙이 기존 1, 2, 3학년 대상으로 토요일만 외박이 가능한 것에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외박이 허용됨으로 인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학기 수시 모집 기간과 축제 등의 예정된 연간 교내 행사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LG Challengers 팀의 활동 보고로 전 학년 모임은 마무리되었다.

◆ 강화경 기자 / 사진출처 : 한가원 학생



\_02

##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전 학년 모임

2018-1 전 학년 모임

2018년 3월 14일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간호학과 전체 모임이 이루어졌다.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전 학년의 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올해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될 학생회, 각종 연간 행사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를 이어 학과 프로그램인 VS(Veritas Studium)와 버디버디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이 설명되었다.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동안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Sol-Challenge 프로그램과 일본 동계 해외연수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학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누며,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 강화경 기자

\_03

## 진정한 간호사란 무엇일까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술제  
The Real Nurse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간호학과 학술제가 열렸다. The Real Nurse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과장님의 인사말로 학술제가 시작되었다. 학술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지도교수별 UCC 경진대회와 1학년들의 축하 공연, 지난 학기의 버디버디 UCC 수상작을 시청하며 마무리되었다. 2부는 전 학년이 모두 모여 골든벨을 진행하였다. 골든벨의 문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기본 간호학 실습, 해부생리학, 정신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간호학 등과 난센스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날 각 학년의 학생들이 섞여 문제의 답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함으로써 학년 간의 마음이 더욱더 모일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1년간 생활하고 활동하였던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전 학년의 단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골든벨로 막을 내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술제는 주제에 맞게 진정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축하 공연을 준비한 1학년 학생 중 민채연 학생은 "제가 벌써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온 지 1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희가 올해 이뤄온 게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돼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 정소영 기자



## \_04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 적응 설명서

### 버디버디 프로그램

2017년 12월 2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미디어융합관 시청각실에서 2학기 버디버디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버디버디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특색화된 Sis-Bro Ever Program으로 1학년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각 팀은 6분이 넘지 않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매월 작성한 보고서와 UCC로 각 팀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채점되었으며 총 13팀이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6조인 백설공주와 난쟁이 팀이 조원 투표와 보고서, UCC 평가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최종 1등을 차지하였다. 이 학생들은 유행하는 광고나 노래를 인용하거나 영화 패러디를 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학년 박수희 학생은 "1학년 때와 달리 직접 버디버디를 계획하고 후배들과 진행하면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버디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어 즐거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2018년도의 1학년 적응을 돕기 위한 버디버디 프로그램이 새로이 시작되었다. 특

히 이번 버디버디 활동은 작년과 달리 봉사, 여행, 운동, 영화, 마니또, 사진, 두뇌계발, 학술 등 다양한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즐겁게 버디버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복지국의 노고가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우송타워 6층 강당에서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디버디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본 대회도 마찬가지로 버디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심히 활동했던 모습들을 UCC로 제작해 뽑내는 자리였다. UCC는 각 팀의 개성이 잘 녹아 있었으며 진행한 활동, 미션을 해결하는 모습, 학생들의 소감 등을 볼 수 있었다. 버디버디 활동을 마무리하는 대회까지 끝난 후 2학년 학생들은 "작년 버디버디는 만나는 시간이 짧아 아쉬웠는데 이번에 추가된 미션 덕분에 작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다. 버디버디는 선후배뿐만 아니라 동기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김의현, 정소영, 김혜민 기자 / 사진출처 : 정소영 기자



## \_05 새로운 시작, 눈부신 도약

우송대학교  
2018년 2월 학위수여식



우송대학교는 1년에 4학기를 운영하는 학교 특성상 8월과 2월에 학위수여식을 진행한다. 간호학과는 2월에 학위수여식 즉, 졸업식을 2018년 2월 23일에 진행하였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4년 동안 '간호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원서를 활용하여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실질적인 간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학생들은 '버디버디'와 '파자마 톡'이라는 선후배 간의 친선 도모 활동에 참여하여 인성도 함께 함양할 수 있었다. 올해 졸업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오미진 학생은 "4년 간의 원서 수업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졸업 소감을 남겼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차후 한국을 넘어 세계로 우리나라의 간호 지식을 전파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 강화경 기자 / 사진출처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www.wsu.ac.kr)

## \_06 함께여서 더 즐거웠던 기억

우송 간호의  
Membership Training



2018년 3월 16일 우송대학교 체육관에서 간호학과 MT 겸 체육대회가 열렸다. 간호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이 참석하였고 프로그램은 문화국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게임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OX 퀴즈, 꼬리잡기, 수건돌리기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선후배 간의 우애뿐 아니라 교수님들과의 화합도 이끌어냈다. 올해는 행사 업체가 아닌 간호학과 3학년 학생 두 명이 직접 MC를 봤다는 점도 색달랐고 학생들의 높은 환호가 인상적이었다. 간호학과 3학년 고혜지 학생은 "이번 MT를 통해 공부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었고 새로 들어온 1학년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우연히 진행을 맡게 되어 무척이나 뜻깊었고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다시 MC로서 우송 간호의 행사 분위기를 이끄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진윤정 기자 / 사진출처 : 진윤정 기자



\_07

## 찬란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



2018년 4월 5일부터 우송대학교 다문화 멘토링이 시작되었다.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우송대학교 재학생 20명이 멘토를 맡았으며 그 중 14명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이루어졌고 멘티는 대전 동구 다문화 가정의 아동 20명으로 결성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12월까지 20회 이상의 멘토링을 목표로 두고 있다. 멘토들은 다문화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영화관, 카페, 놀이터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수학, 영어, 한글 등 아이들

의 공부를 봐 주면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송대학교 재학생 멘토들은 이러한 놀이와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문화 멘토링에 직접 참여한 2학년 주지호 학생은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이며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한수민 기자 / 사진출처 : 주지호 기자



\_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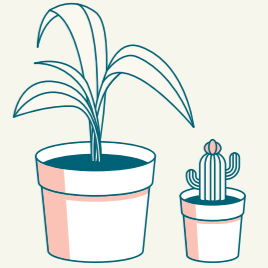
## 합창과 카네이션으로 전달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

스승의 날 행사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약 30분간 우송 타워 (W13) 4층 강당에서 스승의 날 축하 행사가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교수진들과 전 학년 학생들이 모여 행사를 즐겼고 학생들은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행사는 간호학과 학생회장의 편지 낭독으로 시작되었으며 모든 학생이 출연하여 만든 동영상 시청하고 학생회 임원들이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편지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제작한 동영상은 각 교수들의 특징을 정확히 담아내어 학생들의 교수를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김혜민 기자 / 사진출처 : 김혜민 기자



\_09

## 내 몸의 주인 : 절주

절주 걷기 대회



2018년 5월 21일 장기 요양 보험 10주년을 기념하는 건강 걷기 대회가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중앙동아리인 ‘절주’는 우송대학교를 대표하여 출전하였다. 학교별로 다양한 동아리들이 참가해 부스를 열었고 이날 ‘절주’는 혈당 체크를 중심으로 지문 트리, 굴러 굴러 절주공 등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을 준비하였다. 절주 동아리 부원이자 간호학과 2학년인 민채연 학생은 “이렇게 큰 걷기 행사는 오랜만에 와서 매우 설렜어요. 어르신 중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식후 5분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조언해드렸고 매우 뿌듯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 강소영 학생

\_10

## 글로벌 간호 리더를 위한 첫 도약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제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우송대학교 도서관 (W1) 강당에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76명의 제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진행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에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간호에 대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한글로 낭독한 후에 영어로 다시 한 번 낭독하면서 글로벌 국제 간호사의 사명을 가슴에 굳게 새겼다. 이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꾸며낸 뮤지컬이 행사를 더 빛나게 만들었다. 뮤지컬 말고도 1,2학년 학생들이 'start of something new'와 'butterfly'를 합창하여

먼저 간호사의 길을 가는 선배의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선서를 통해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문의 내용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간호사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 김익현 기자 / 사진출처: 강규민 학생



\_11

## 대학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상

간호학과 졸업생 하나름, 재학생 류다빈의 '자랑스러운 우송인상' 수상



2017년 10월 11일 '우송학원 창립 63주년 기념식' 행사로 도서관 1층 강당에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우송인상' 수상식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기 졸업생 하나름 동문과 재학생 류다빈이 자랑스러운 우송인상을 받았다. 우송대학교는 '최고의 만들자'라는 통합된 신념 아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창립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우송대학교의 모습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 힘써준 많은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수상식에서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에서 교육 및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거나 장기근속하고 계신 많은 분께 트로피,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자랑스러운 우송인상은 교직원, 졸업생, 재학생 세 부문으로 나뉘며 하나름 동문은 졸업생으로서, 류다빈 학생은 재학생으로서 상을 받게 되었다. 하나름 동문은 "유난히 마음이 흔들리고 많은 생각이 드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런 저에게 다시 한 번 학생 때의 열정, 마음가짐과 신규 때의 초심을 갖게 해주는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수님, 동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을 받기에는 정말 과분하지만, 앞으로 병원 임상 현장에서 더 노력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 한수민 기자 / 사진출처: 주지호 기자

On October 11th, 2017, at the '63rd Anniversary Ceremony of Woosong', 'The Proud Woo-Song prize' was awarded to Na-leum Ha, the first graduate of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and Da bin Ryu, undergraduate student.

Woosong University has been providing generous support to cultivate talents who pursue changes and innovations under the unified belief of "Let's make the best". Also, Woosong University has been awarding the 'The Proud Woo-Song prize' to those who have made a lot of eff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and giving thanks to many who have worked hard for development since its foundation.

At the award ceremony, trophies, certificates and prize-money were awarded to many who have worked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s i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or those who ha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in Woosong University and Woosong College.

'The Proud Woosong prize'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aculties, students, and graduates. Na-leum Ha and Da bin Ryu was awarded each as a graduate and students. Na-leum Ha said, "I had been going through a hard time these days, but thanks to the school this award made me think about my inner passion that I had when I was a student.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rofessors and alumni for giving such award. I'll do my best to help everyone who's involved in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with this award. Although it's too much for me to receive such an award, I will do my very best to make more efforts in the clinical field and for the juniors. Thank you."

◆ Seri Ahn / Photo Source by Woosong University website (www.wsu.ac.kr.)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신문 제작 동아리 'Sol-Times' 회장 김의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때부터 열심히 활동해 온 동아리의 임원진  
 으로서 서툴지만 잡지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드디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 온  
 본 동아리의 잡지 'Sol-Nursing Times'를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임원진들이 모두 힘쓰고 협력하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담은 잡지가 나온 것 같아 기쁩니다.  
 본 동아리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와 잡지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소식을 알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홍보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학과의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L-NURSING TIMES



Sol-Nursing Times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 동아리  
 입니다. 우송간호의 소식과 행사를 담은 잡지와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Sol-times는 글,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제 14호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